아茶茶! 옥에 티…

드라마 속 차 장면 '오류 투성이'

'사극 전성시대'다. 현재 MBC의 '주몽'과 SBS의 '연개소문', KBS 2TV의 '대조영' 등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대형 사극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시대배경으로 하는 이들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찻자리' 장면이다. 하지만 명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자사호가 신라시대에 등장하는가 하면, 잎차를 마시지 않았던 수나라 황제의 찻자리에 개완배가 놓여있는 등 오류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드라마 속 '옥에 티'를 찾아보고, 드라마에서 당시의 차문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해 방영된 KBS 드라마 '해신'(위)과 SBS 연개소문의 한 장면. 사진제공=KBS · SBS

지난해 5월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해신'. 신라시대 청해진을 건설한 장보고가 주인공인 이 드라마에서, 상단을 이끌며 무진주 상권을 휘두르는 귀족 여장부 자미부인은 혼자 있을 때면 늘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흔히 '자사호'라 불리는 찻잔이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말기, 중국의 수나라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SBS의 '연개소문'. 드라마 속 수(隋)나라 황제 문제(文帝)가 부인 독고황후에게 차를 건넨다. 이때 수문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숙우, 황후와 수문제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개완배(蓋碗杯)다. 중국 수나라 상단의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는 주인공 연개소문 역시 잎차를 우려마시는 다관과 찻잔을 곁에 두고 책을 읽고 있다.

'해신' 서 명대 자사호가 신라시대때 등장

'연개소문' 은 수의 병차에 잎차 다구 사용

차문화에 대한 체계적 고증 · 연구 없기 때문

단적인 예지만, 두 드라마 모두 신라시대와 수나라라는 당대 차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마시던 차의 종류가 잎차인지 덩어리차인지, 사용하던 다구가 다완인지 찻잔인지 따져보지 않은 탓이다.

우선 '해신'의 경우 자미부인이 신라시대의 귀족이라면 잎차가 아닌 '단차'를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 하대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시문집 <계원필경(桂苑筆耕)>에서 당시 귀족들의 차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글을 남기고 있다. 중국으로 유학 간 최치원은 중국차를 구해 고향의 부모님께 보냈는데, 그가 보낸 중국의 차는 병차(餠茶,떡차)였기 때문이다. 당나라 760년 경 육우가 쓴 <다경(茶經)>에 따르면 당나라 시대의 병차는 맷돌에 차를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찻물에 넣어 끓여 마셔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토기잔이나 다완(茶碗)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명나라 시대에 제작되기 시작한 자사호가 신라시대에 등장하는 것 역시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드라마 '연개소문'에 등장하는 수 문제는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로 차를 즐겨 마신 인물이다. 그는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남쪽지방의 차가 북쪽으로 쉽게 운반될 수 있도록 해 차문화 확산에도 일조를 했다.

수나라의 차문화는 이후 당나라의 차문화의 모태(母胎)가 되므로, 이때 역시 병차 위주의 차생활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된 잎차 다도구와 개완배가 시대와 맞지 않는 이유다. 차의 온도와 향을 유지하기 위해 다완에 뚜껑을 덮은 개배(蓋杯)나 개완(蓋碗)이 등장한 것을 명대 후기이고, 잎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마시는 포다(泡茶) 다구 역시 명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드라마 속 차문화는 당대의 차문화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동양차도구연구소 박홍관 소장은 "조선시대 이전의 차생활과 차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 작가나 드라마 제작진들이 해당 시대 차문화에 대한 철저한 고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 궁전 · 주거 형태 등에 대한 고증과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과 달리, 차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년 '고려 다례' '백제 다례' 등을 고증해 발표하고 있는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드라마라 하더라도 우리 전통 차문화를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방송 모니터링이나 전문가 자문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명원문화재단은 매년 명원차문화상 시상식 때 시대별 헌다의식을 재현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日, 센 겐시츠 대종장의 <일본 다도의 마음> 국내 소개

일본 다도계의 최대 유파 우라센케(裏千家)의 수장인 센 겐시츠(千玄室, 83) 제15대 대종장(大宗匠)이 쓴 <일본 다도의 마음>이 국내에 소개됐다.

이 책은 2002년 일본에서 발간된 것으로, 중앙대 박전열 교수(한일문화연구원장)가 우리말로 옮겼다. 책은 차를 내는 마음과 다도구 · 찻자리 꽃 · 다실 · 다과 등 차문화 전반에 대한 센 겐시츠 대종장의 단상과 그의 동생이 쓴 간단한 해설, 찻자리 사진을 곁들인 화보집이다.

'다도의 마음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려는 마음'이라는 센 겐시츠 대종장은 "다도는 어마어마한 작법이 아니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인생의 좋은 길잡이이자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고 설명한다.

센 겐시츠 대종장은 16세기에 일본의 다도를 완성한 센 리큐(千利休) 거사의 15대 직계손으로, 지난 50여년 간 '다도'를 통한 평화활동에 앞장 서 왔다. 일본 문화훈장을 비롯해 이탈리아 코멘다토레 문화훈장, 브라질남십자성 훈장, 프랑스 레종 도뇌르 훈장을 수여했고 지난해에는 중앙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월간 다도, 2만3천원.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6. 정신의 음료

④ 다선(茶仙) 육우

당대(唐代)는 중국 역사상 가장 휘황찬란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기로 정치 · 경제 뿐 아니라 문화교류 역시 활발했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특히 차는 이런 경제 · 문화의 번성이라는 큰 기류 아래서 음다(飮茶) 풍습이 남방에서 북방으로, 변방의 각지까지 전해져 생산량이 확대되고 차를 안 팔고 안 마시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사대부들은 벼슬에 나가기위해서 과거에 응시했는데 응시자들의 답답함과 감독관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조정에서 특별히 다과(茶果)를 시험장에 보내 사대부들 사이람들이 차의 깊은 뜻과 묘한 절경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육우는 차의 전문서적을 쓰기 위해 다년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호주에서 차에 대한 최초의 전문 서적을 저술하게 된다. 차의 고장인 강남의 맑고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생활하면서 유명한 시인과 명사들과의 교우는 그의 저술에 영향을 주었다. 육우는 어려서부터 지적법사에게 불교의 교리와 차 따고 끓이는 법을 배웠고 차에 대해 깊은 흥취를 갖고 있어 차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지적법사는 육우가 떠난 뒤에도 그의 차 달이는 맛을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이 당시 경전에 대한 공부는 사대부들의 정도였지만 다예(茶藝)는 정통적인 학문은 아니다. 육우도 다른

역대 차사(茶事) 수집 10여년 걸쳐 <다경> 저술

음다 뿐 아니라 철학까지 다뤄 예술로 승화

당대(唐代) 작자 미상의 <궁악도(宮樂圖)>.

에 음다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많은 시인들이 차를 즐겨 마셨으며, 좋은 물과 좋은 산을 찾아다니며 산수를 즐기고 차를 마시며 시를 짓는 것이 하나의 풍속이 됐다.

또한 왕실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하여 귀족들은 항상 정신이 혼미하고 피로가 누적되고, 과식으로 체증이 있었다. 그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를 시키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차를 마셨다.

이러한 차를 공급하기 위해 조정은 각 지역에서 질 좋은 차를 공납케 하여 공차(貢茶)제도가 생기게 된다. 왕실에서는 일반 승려나 사대부와는 달리 명차(名茶)와 명수(名水)에 사치스런 다구인 금 · 옥으로 된 다기를 사용하였다.

조정에서는 안사의 난(755~763)으로 곡식의 생산량이 줄어 술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자 금주령을 내렸다. 술의 가격은 너무 비싸 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차를 마시게 되었고, 문인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에 이로운 차를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당초(唐初) 이래로 차 생산의 확대와 음다 풍속이 성황을 이루었지만 차를 마시는 모든 사대부들처럼 유가학설에 아주 익숙하였으나 일반 문인들과 다르게 유가적 학설에 구속받지 않고 심오한 원리를 차에 용해시켰다. 차에 대한 초고(初稿)는 안사의 난이 평정된 해인 763년, 그의 나이 28세에 저술되었다. 그 후 역대의 차사(茶事)를 수집하여<다경>을 보충하고 결국 10여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육우는 <다경>을 저술해 차 문화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고 차의 생육과 음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차에 배어있는 사상과 철학을 말하여 차 문화를 총체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는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융화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특징을 살려 격식을 이루고 맑고 새로운 차문화라는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차를 더욱 잘 알게 되자 조정에서 그를 태자문학으로 임명하였으나 관직에는 관심이 없어 산수를 즐기며 일생을 보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진흙으로 그의 형상을 만들어 집안에 두고 다신(茶神)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특히 차를 파는 집에서는 장사의 수호신으로 육우 도상을 장식해 내는 풍습이 있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좋은 책, 향기로운 삶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애드피디아 http://ad.buddhapia.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찬양합니다 ·반야심경 ·입정 ·청법가 ·법문 ·정근 ·발원 및 축원 ·사홍서원 ·산회가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